

축구협회, 금융기관 대출금 부풀리기 '의혹'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비용 'एं터리' 산출 이사회 때보다 공사비 20억 ↓ · 자체 수입 65억 ↑ 조계원 "관련자료 국민 앞에 빠짐없이 공개해야"

대한축구협회가 지난해 말 이사회에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비용을 'एं터리'로 산출해 보고하면서 금융기관 대출금 규모를 부풀린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사진)에 따르면 2023년 12월 19일 축구협회 이사회에 제출된 '2024년 예산(안) 보고서'와 올해 8월 기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추진 현황'

자료를 비교한 결과, 총공사비는 8억원, 토지 취득비는 17억원, 조달 가능 재원은 57억원 등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축구협회는 지난해 12월 19일 이사회를 열고 '2024년 예산(안) 보고-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대출 실행의 건'을 보고했다. 당시 보고된 사업 세부 내용을 보면 ▲토지 취득비 220억원 ▲공



사비 1천288억원 ▲설계비 22억원 ▲감리료비 21억원 등 총사업비는 1천541억원이다. 이와 함께 축구협회는 조달 가능 재원으로 928억원을 보고하면서 사업비 부족 분 615억원을 금융기관 대출로 조달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승인 요청했고 이사회는 별다른 이견 없이 승인했다. 반면, 국회에 제출된 올해 8월 기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추진 현황' 자료 중 공사비 집행 현황에 따르면 ▲토지 취득비 247억원 ▲설계·감리비

55억원 ▲공사비 1천247억원 등 이사회 보고자료 대비 약 8억원이 증가해 총사업비는 1천549억원 규모다. 축구협회는 이 자료에서 2018년 10월 기본계획 수립 당시 953억원의 예상 건립 비용이 1천550억원까지 증가한 이유로 'COVID-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이슈에 따른 건설 비용 상승과 부지 내 대형 암반층 발파에 따른 설계변경 등'을 들었다. 하지만 이사회 보고자료와 국회 제출 자료를 비교하면 대형 암반 폭발로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공사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순 공사비는 오히려 1천288억원에서 1천247억원으로 20여억원

줄었다. 기금 수입과 자체 조달 금액을 합친 재원 조달 수입도 991억원으로 8개월 전 이사회 때보다 57억원이나 늘었다. 심지어 토지 취득비는 8개월 사이 17억원이 늘었고 지난해 9월 업체를 선정해 확정된 감리비는 1억원 증가했다. 결국 축구협회는 지난해 말 이사회에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비용 부족분에 대한 금융권 대출 승인 요청 때 자체 수입은 65억원 가량 줄이고, 마이너스 대출금은 57억원 가량 늘린 'एं터리'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조계원 의원은 "축구협회가 축구종합센터 공사비를 'एं터리'로 산출했고 자

체 수입은 65억원이나 줄여 이사회에 보고했다"며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 의논을 가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승인도 없이 대출금 규모를 부풀려 금융기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것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축구협회는 이사회에 제출한 총공사비 세부 산출 내용은 물론, 단기간 내 수입이 늘어난 입증 자료를 국민 앞에 빠짐없이 공개해야 한다"며 "문체부도 축구종합센터 건립 공사비에 대해 이번 기회에 면밀히 들여다 보고 책임자 문책 등 재발 방지대책을 확실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가상자산 상위 1%가 투자금액 70% 차지

계좌당 평균 893만원... '큰손'은 주로 4050 세대 안도걸 "가상자산 과세시 年 2천500억-1조 기대"

우리나라 양대 코인마켓(업비트·빗썸)에 개설된 가상자산 계좌 770만개 중 1억원이 넘는 계좌는 전체 1%에 불과했으나 투자 규모는 전체 금액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억원 이상을 투자한 고액 계좌 3천400여개의 평균 투자액은 94억5천만원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등남을·사진)이 2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말 기준 가상자산 보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에 개설된 1천609만개 계좌 중 실제 투자가 이뤄지는 활성화 계좌는 절반 이하인 770만개였다. 또 투자자들의 평균 보유액은 883만원이었다.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88조8천억원 규모다. 투자 규모별로는 1천만원 이하를 투자한 계좌 수가 전체 92%를 차지했다. 이들 소액 계좌의 평균 투자액은 65만원이었다. 반면, 10억원이 넘는 초고액 계좌는 총 3천400여개로 이들의 총 투자액은 32조1천279억원, 1계좌 당 평균 보유액은 94억5천만원이었다. 전체 계좌의 0.04%에 불과한 이들이 전체 투자액의 절반 가까이 47%를 보유해 주식시장보다 솔림이 심한 것이

다. 10억원이 넘는 고액 계좌의 경우 40대가 가장 많았고 평균 보유 규모는 50대가 평균 148억원대로 가장 컸다. 가상자산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투자 수단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가상자산 '큰손'들은 4050세대인 것이다. 10억원 이상 고액투자자 중 4050세대가 60%를 차지하고 중장년 큰손들의 평균 투자액은 127억원이었다.



가상자산 투자를 수십억원대 규모로 할 경우 10%의 수익만 얻는다 해도 수익원의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양도소득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인 '체인널리스'(chainalysis)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소득 추정치는 10억4천만달러(한화 1조4천억원)로 세계 8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김진수기자

상대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호황이었던 2021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39억3천만달러(한화 5조2천억원) 규모의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상자산 소득 금액에 대한 20% 과세가 시행된다면 연간 2천500억원-1조 원 가량의 세수 확보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안도걸 의원은 "코인은 과거 투기자산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지만 블록체인과 같은 미래 기술 산업의 핵심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2022년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준비 미흡을 이유로 3년째 유예되고 있어 안타깝다. 가상자산이 범죄 등에 악용되지 않고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당국의 주의를 기울여야"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김문수 "여순사건, 중학교 교과서서 사라져"

역사교과서 7종 중 2종만 본문에 언급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이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사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사진)이 23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학교 역사 교과서 7종 중 2종만이 본문에 여순사건을 언급했으며 본문과 연표가 모두 언급된 교과서는 1종에 불과했다. 김문수 의원은 "고등학교 검정 역사 교과서는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표현하고 중학교 교과서의 대부분은 언급조



차 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는 여순사건 지우기를 멈추고 학생들에게 진실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2천500명 이상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안타까운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중학교 교과서에 여순사건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며 "교육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진수기자



논의하는 법사위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봉 의원(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석 "통일 봉인... 두 국가로 평화롭게"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은 23일 "이상에서 현실로 전환하자"며 자신의 이른바 '두 국가론'을 거듭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치와 지향만을 남긴 채 통일을 봉인하고 두 국가 체제로 살면서 평화롭게 오고 가며 협력하자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인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하지 말자"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밝힌 바 있다. 임 전 실장은 "윤석열 정부가말로 김

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에 정확하게 동조하고 있다"며 "상황을 바꾸려는 전략적 노력 없이는 지금의 상태는 악화할 것이고, 윤석열 정부 임기 말쯤엔 적대적인 두 국가가 상당히 완성돼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면 예전처럼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생각도 대단한 오산"이라며 "미국 대선 후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북미 대화가 진행되면 한국은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다. 오랜 고민을 축적해 용기를 내 발표한 것으로, 건강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